

사랑침례교회 건축을 위한 풀링 모금 계획

1. 풀링은 원금을 교회에 내는 것이 아니라 원금을 무이자로 교회에 빌려주고 짧게는 2-3년, 길게는 10년 정도 본인이 이자를 감당하는 제도이다. 풀링 약정 기간이 끝나면 교회는 원금을 돌려준다.
2. 건축 시작 이후에 오시는 분들도 가능한 한 2-3년간 풀링에 참여하게 하여 형평성을 유지한다.
3. 교회 건축을 위한 풀링은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4. 이번에 지으려는 건물 비용은 80억 원으로 생각하고 30억 원 이상의 풀링 모금을 하려 한다(구체적인 부지, 건축 면적은 추후에 공지할 것이며 현재는 700평 부지에 1000-1200평 건물 건축 목표, 지금보다 3배 많은 인원 수용).
5. 풀링 모금 총액과 현재 출석 성도들의 수를 생각할 때 각 가정이 2000만원 풀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이 경우 연 이자를 4%로 가정할 때 연간 80만원의 이자를 한 가정이 부담하는 것이다. 이것은 기존에 각 성도나 가정이 해 오던 현금(주일, 미디어 선교, 건물 현금) 이외에 순전히 교회 건축을 위해 희생으로 더 드리는 현금이다. 재정에 여유가 있는 가정은 조금 더 하고 여유가 덜한 분들은 조금 덜하며 전혀 여유가 없는 분들은 안 해도 된다.
6. 풀링은 건축이 시작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외부 성도들의 참여도 구한다.
7. 풀링 모금이 건축 비용에 못 미치면 일단 부지를 먼저 구매하려 한다. 그리고 최대한 소래 예배당에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인원을 다 수용하기 힘들면 격주 예배 등을 실현한다.

풀링 모금 약정서

1. 이름(가정 대표 혹은 개인):
2. 풀링 금액:
3. 풀링 모금액 반환 요청 시기(모금 후 2년 뒤, 3년 뒤 등):

2016년 2월 일

이름 (인) 혹은 서명

(*) 가정의 경우 부부가 의논한 뒤 대표자가 서명하기 바람

(**) 풀링 모금액은 가능한 한 2016년 4월 첫 주까지 교회 계좌로 직접 이체

우리은행 1005-901-906972(사랑침례교회)